

■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제2강

# “작가·작품·주제의식 넘어 지역과 호흡해야 좋은 전시”



‘크레이팅이란 무엇인가’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홀 마리아 린드 예술감독

“좋은 전시란, 작가와 작품, 장소, 그리고 시기가 잘 맞아 한다고 봅니다. 큐레이터로서 주제의식을 던지는 질문과도 조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2008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베니스 비엔날레를 꼽습니다..”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1일 광주비엔날레재단 제문헌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광주문화포럼’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마리아 린드(Maria Lind·46) 스웨덴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홀(Tensta Consthall) 예술감독.

콘스트홀에서 기획한 전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 강연은 ‘오늘날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시간 20여분동안 이어졌다.

“텐스타 콘스트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의 대도시에서, 다소 동떨어진 주택가에 만들어진 일상적인 전시기관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국제적인 현대미술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해야 할 일을 다양하고 새롭게 봐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콘스트홀이 전시공간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2011년 부임한 그녀의 역할이 컸다.

“전일자는 공연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공연무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

지요. 공연이든, 전시든, 세미나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변치 않았던 원칙은 지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부임후 아트센터가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진행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과 함께하고 경제적인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는 정착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개념들을 일상에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카페 운영이었다.

“콘스트홀에 커피나 차를 판매하는 곳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카페는 없었어요. 워낙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었죠. 카페 운영은 성공적이었어요. 사회적 기업인 아트센터가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한 카페가 지금은 센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능이 됐어요. 대개 관람객은 관람하면서 커피나 식사를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종종 카페만 왔다가 전시관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들도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죠. 분위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방의 아트센터에서 전 세계 유명작가들의 전시회를 열게 된 지금의 콘스트홀이 되기까지 그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부임 후 공간을 재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재원이 부족했지만 진행

했지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조명을 바꾸고 검은색이었던 전시장 천정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입구쪽 벽을 허물어 관람객들이 들어 서자마자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지요. 미술작품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통한 새로운 공간도 만들었어요.”

기관 안착의 세 번째 전략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지난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처음의 세 배 가량 증액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는 예술분야에 기부하는 사례가 드물고 굉장히 취약해요. 국립예술협회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만 소액이에요.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은 두가지였어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공동 작업)을 하는 것, 또 한가지는 EU로부터 받는 지원금이었어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등 텐스타 콘스트홀과 같은 성격의 아트센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타 지역 아트센터들과의 교류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며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문화포럼 제3강은 다음달 25일 ‘디자인, 거시기 머시기’(강사 이영혜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를 주제로 열린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마리아 린드 스웨덴 스톡홀름 텐스타 콘스트홀 예술감독이 21일 광주문화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청소년 고민 노래로 풀다

### 23~25일 광주콘텐츠산업센터

학교 생활, 우정, 왕따 문제 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풀이한 작품이 공연된다.

푸른연극마을이 뮤지컬 ‘저 별이 위험하다 시즌2’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였던 작품을 업그레이드 했다. 23~25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사직 공원 옛KBS 광주방송총국)

청소년야카카데미 회원과 주부 극단, 그리고 극단 배우들이 협업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 꿈, 우정, 사랑 등에 대해 직접 표현한다.

호기심 많은 천사 소녀 울랄라저 아래, 지구별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지구에 내려와 학교에 다닌다. 집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내쳐졌다고 생각하는 소년 기용은 자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울랄라와 우정을 나눈다.

이당금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작곡가 박희씨가 만든 뮤지컬 넘버들이 인상적이다. 박다운·오새희·유건우·오예빈·박세련·박한별·나문영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디어파사드’ 미래를 본다

27일~9월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기획전

미디어파사드의 현황과 전망을 묻는 기획 전시와 심포지엄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2013 시리즈 세 번째 전시로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미디어큐브338에서 ‘미디어파사드-About’ 전시를 연다.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는 미디어(Media)와 파사드(Facade)를 결합시킨 용어로 건물 외벽을 대형스크린처럼 꾸며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 형태와 제도적·유형별 개념을 짚어보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전시 및 페스티벌 관련 사진 160여 점과 영상 60여 편을 통해 미디어파사드가 세계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발전·심화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7일 전시 개막에 앞서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미디어아트창의시민포럼은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장에서 ‘미디어파사드-About’ 연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1세션에서 뉴미디어아트연구회 김경미 NMARA대표와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와 대전 멀티미디어 거리의 사례를 통한 미디어파사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2세션에서는 아시아문화학회 정성구 기획이사과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이 광주 공공 공간의 미디어아트 활용방안과 국내외 미디어파사드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서울 무대 오르는 ‘애꾸눈 광대’

장애인연극제 초청 오늘 국립극장

80년 5월 상처의 치유와 희망을 온몸으로 풀이한 1인극 ‘애꾸눈 광대’가 서울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애꾸눈 광대’는 2013장애인연극제에 공식초청돼 오는 23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서울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한쪽 눈을 잃은 배우 이지현 씨의 삶과 작품 내용이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판단한 김병호 예술총감독이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애꾸눈 광대’는 5·18부상자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지현 씨의 자전적 삶에 5월 유족들의 이야기를 더해 구성된 1인극.

80년 5월 계엄군에게 눈을 잃은 주인공이 투쟁 현장을 누비는 사이 아들이 가출해 버리고, 그 아들을 찾아 광대가 되어 전국을 누비면서 5월의 아픔을 알리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창작소리, 마술, 성대모사 등 여러 장르를 통해 보여준다.

오는 10월 8일까지 매일 들뜬, 넷째 화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이 계속되며 10월 11일 서울 마포아트센터(10월11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부산 민주공원, 인천 부평문화사방 등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문의 062-670-7496 /이보람 boram@

## 한·일·영 창작공연 ‘언젠가’ 관람 기회

무료 시민 관객단 모집...9월3~15일 옛 광주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사전 제작 프로젝트 ‘ONE DAY, MAYBE 언젠가’(이하 언젠가) 제작팀이 시민 관객단을 모집한다.

‘언젠가’는 한국·영국·일본이 공동제작하는 프로젝트로 5·18 광주항쟁에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 영상, 설치미술, 사운드, 라이브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져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광주공연은 오는 9월3일~15일까지 광

주시 동구 장동 옛 광주여고에서 열리며 11월과 12월 일본 고치현립미술관과 가나자와21세기 미술관에서도 공연된다.

시민 관객단으로 광주전남에서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족 그룹(10팀)과 문화예술 그룹(60명)을 선정하며 9월3일~4일(오후 8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이메일(onedaymaybe@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765-65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